

**미주** 온갖 길모양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모양을 모양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금강경-

# 현대불교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창시하시어 2545년(서기 2001년) 11월 7일 수요일(주간) 제 342 호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1월 7일 수요일(주간) 제 342 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스님들의 NGO 동참

한국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표방해 왔지만 해방이후 교단 운영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거나 중생의 고통에 침묵 내지는,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스님들이 시민·환경운동에 동참하면서 '시대(時)'와 '사회(社)'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



민내원장사 주지스님이 결별된 회장 겸 실권 공동대표,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일연스님이 환경단체인 '녹색미래'의 공동대표에 각각 추대된 것은 종단의 지도급 스님들이 참여불교운동에 나섰다. 이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정각(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해충(갑사) 주지스님이 공동대표를 맡아 12월 초 부산불교연합회의 '청정과 화합의 사회를 가꾸는 모임'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스님들의 대

### 장군죽비

- ◇조계종, 1962년 출범 후 최초로 3급 승가고시 병행, 요식 행위가 아니라 승가의 위엄을 드높이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3면)
- ◇지금 인도는 '귀의의 땅'. 45년 전 임베드까르 박사가 뿌린 불법의 씨앗이 700만 명 불자로 열매 맺고 있다. (9면)
- ◇사찰음식, 산문을 나와 세간 속으로 쥔 걸음, 담백한 맛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식탁 위의 녹색혁명! (11면)
- ◇절편은 절(刹)하는 곳, 입주문에서 절하고, 스님 만나면 절하고, 부처님 앞에서 오체투지, 전국 사찰에는 절하는 신도들로 만연. (23면)

# 신도기본교육 내년부터 의무화

## 조계종 13일 선포 발대식... 2천여 사찰서 본격 실시

### 공통교재 '불교입문' '지도교안' 도 발간

조계종에 입문하는 초심자라면 누구나 종단이 정한 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도기본교육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승가교육 체계 구축에 이어 신도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은 13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도교육 실시를 선포하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도교육의 체계는 기본교육-전문교육-지도자교육-재교육 등 4단계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교육은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다. 조계종단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기본교육의 경우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불교의례 등에 대해 6개월(최장 1년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재는 <불교입문>으로 통일하되, 사찰 특성에 따라 부교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전문교육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에 한해 포교원이 인가한 불교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1년 과정(128시간 이상 교육)으로 실시된다. 이 과정을 이수한 불자들에게는 포

교사로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지도자교육은 포교사로서 3년 이상 포교분야에서 활동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재교육은 사찰이나 신행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포교원은 전문교육 시행에 필요한 불교대학을 종단 인가제로 바꾸는 등의 전문교육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하는 한편, 지도자교육 및 재교육 교육과정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buddhapa.com



◇조계종은 10월 29일부터 1일까지 적지사에서 3급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승가고시 합격자 331명 스님들이 회향식 날 가사를 들고 법계를 품어받고 있다. 적지사=고영배 기자

### 조계종 첫 3급 승가고시 합격자 331명에 법계 수여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 출범 이후 처음으로 3급 승가고시의 종법에 따른 법계 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은 10월 29~31일 1일 적지사에서 비구 144명, 비구니 178명 등 332명 스님들이 응시한 가운데 3급 승가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1명을 제외한 331명이 합격했으며, 1일 열린 회향식에서 합격증과 함께 가사가 수여됐다.

또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회향식에 이어 열린 법계 품서식에서 합격자들에게 비구 스님에게는 증덕(證德), 비구니 스님에게는 정매(定德) 법계를 품서했다.

한명우 기자

### 조계종 종지 봉대 등 11월중 정관개정 선포원 이사회

제(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1월 중 정기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종지 종통봉대 △조계종 승려 임원선출 △조계종 승려 창건사찰 신규사찰 등록금지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포원이 10월 26일 총북불교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전국본원장 회의에서 스님들은 "종단과 재단의 관계정상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종도임에도 선거권 제한조치 등이 남아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원우 기자

### 조계종 내년 예산 155억원 중회 상정

재심회계위원회에 평상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는 1일 중회의원 81명중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2회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하고,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후보에 종삼, 진원, 도완, 대원, 월우, 수완 스님을 추천했다. 또 재심회계위원회에 평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법규위원회에 성덕, 천재, 보선, 종현, 종법, 특위 위원에 영배 스님을 선출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152회 중회의에서는 2002년도 조계종 예산 154억8천여만원의 심의의결, 각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총무기관 중정 감사, 종현, 종법 제 개정의 건등 17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중회에 상정한 2002년 예산 154억8천여만원은 2001년 166억5천여만 원보다 11억여원(7%)이 감소했다. 이는 2001년 예산중 총 세입예산의 14.8%에 이르렀던 23억여원의 미수분담금이 대부분 납부되어 내년도 예산에서 10억여원(총 세입예산의 6.5%)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중회 개최사를 통해 "종단 세입예산이 감소하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과 승가대 미납금 50억원 상환을 위해 분담금을 30%로 증액해야 한다"며 "분담금 상향조정에 대해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pa.com

### "문화 월드컵 되도록 사찰 개방 등 노력"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0월 29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월드컵 성공을 위해 사찰을 외국인들에게 문화체험공간으로 개방하자"고 결의했다. 본사주지들은 "민족 전통을 전승해온 사찰을 바탕으로 문화 월드컵이 되도록 교계가 앞장서자"고 밝히고 "종로구청은 조계사 앞 초고층 주상 복합건축 신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원우 기자

### 지역불교 문화기행

11월 : 관축사·고관사·개태사 백제불교 문화를 찾아서

반야산 기슭에 자리잡은 관축사에서는 은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인 은진미륵보살 제218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머리의 화불(化佛)이 내는 황금빛이 하도 밝아서 중국 송나라 지인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뻐하면서 절 이름을 관축사(觀軸寺)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 문화기행에 참가하여 관축사를 참배하시면 사찰의 이름에 걸맞는 불상의 장엄함에 탄성이 저절로 나오실 것입니다.

낙화암 아래 좁은터에 오롯이 서있는 고관사 법당을 함께 하고 뒤쪽 모퉁이로 들어가서 몸짓이 좋아 왕에게 진상했다는 약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에 대한 불은(佛恩)에 보답코저 건립했다는 고려국왕 개태사도 함께합니다.

- 출발: 11월25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 회비: 4만원(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예금주 선정호)

현대불교신문사

##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경매인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합니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단장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롬비니 동산에 있는 마이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